뉴시티교회 리딩지저스

2026.8.24.-8.29

연대기순 성경 통독 34주 차

아침마다 새로우니

역대하 36장, 하박국서, 예레미야 41~52장, 예레미야애가 1~3장

글 오종향

뉴시티교회

여는 글

사랑하는 뉴시티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그 무너진 자리를 걷습니다. 총독이 암살되고,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도망하고, 열방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예레미야서는 감옥에서 나온 왕의 식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토요일, 우리는 폐허에 앉아 애가를 부릅니다.

주일에 들은 하박국의 노래를 월요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습니다. 금요기도회에는 지친 서기관 바룩에게 주신 말씀(렘 45장) 앞에 모이고, 주일에는 애가 한가운데서 이 고백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무너진 자리에도 아침은 옵니다. 그 인자를 아침마다 새로 받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눈에

8월 24일 (월) · 믿음으로 사는 사람

8월 25일 (화) · 빛이 비치는데 보지 않다

8월 26일 (수) ·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8월 27일 (목) ·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8월 28일 (금) · 감옥에서 나온 왕

8월 29일 (토) · 아침마다 새로우니

왼쪽 면에서 말씀을 읽고, 오른쪽 면에 응답을 적으며 한 주를 걸어가십시오.

8월 24일 (월) | 역대하 36장; 하박국 1~3장; 예레미야 41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역대하 36장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과 함락을 요약했습니다(36:21). 이어서 어제 주일에 들은 하박국서 전체를 읽습니다. 왜 악을 보고만 계시냐고 따져 묻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2:4). 예레미야 41장에서는 총독 그달리야가 식탁에서 암살당하고, 예배하러 오던 팔십 명이 살해당했습니다(41:1-7).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하박국은 질문으로 시작해 노래로 끝납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선지자였습니다. 따져 묻던 사람이 파수대에 올라 기다렸고, 기다린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1장이 그 노래의 배경입니다. 성은 무너진 뒤에도 계속 무너지고, 총독이 죽고 예배자들이 죽습니다.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답을 다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답하시는 분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이 로마서의 기둥이 되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롬 1:17). 어제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오늘 내 눈으로 다시 읽었으니, 이번 주는 그 믿음으로 걷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8월 24일 (월) · 믿음으로 사는 사람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8월 25일 (화) | 예레미야 42~44장

빛이 비치는데 보지 않다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하며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42:6). 열흘 뒤 대답이 왔습니다. 이 땅에 머물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42:10-12).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 부르며(43:2)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습니다(44:17).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 기다리신 질문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너무 늦게 왔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머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

그들은 그 빛을 받고도 애굽을 택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면 어떤 이야기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데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날, 눈을 뜬 사람은 한 명이었고 눈이 먼 사람은 여럿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요 9:39). 오늘 기도의 마지막 문장을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맺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8월 25일 (화) · 빛이 비치는데 보지 않다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8월 26일 (수) | 예레미야 45~48장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예레미야의 말을 평생 받아 적은 서기관 바룩이 탄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45:3). 하나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45:5). 대신 어디로 가든지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끝에 모압마저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었습니다(48:47).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무명의 서기관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폭풍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야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그러나 네 생명은 지키겠다.

바룩은 시드기야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왕은 멍에를 거부하다 눈을 잃었고, 서기관은 멍에 아래 목을 넣어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쌓은 것은 남지 않았지만, 받아 적은 두루마리는 성경이 되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큰 일을 찾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막 10:45). 이 바룩의 말씀을 금요기도회에서 다시 폅니다. 나를 위한 큰 일 대신 그분을 위한 신실한 하루를 택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8월 26일 (수) ·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8월 27일 (목) | 예레미야 49~50장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열방을 지나 심판의 말씀이 마침내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50장). 하나님의 몽둥이였던 제국도 자기 죄로 심판받습니다. 그 한가운데 약속이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50:17).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50:20).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50:34).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심판받던 백성이 여기서는 보호받는 자녀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중에도 자기 자녀를 해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흩어진 양을 되찾겠다 하십니다.

죄를 찾아도 없는 날이 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구속자가 강해서입니다. 잊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값을 치러 지우겠다는 말입니다. 지난 잘못이 떠올라 잠 못 드는 밤에 이 구절을 폅니다.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그 강한 구속자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 죄를 다시 주워 들지 말고, 오늘은 속량받은 사람의 얼굴로 걷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8월 27일 (목) ·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8월 28일 (금) | 예레미야 51~52장

감옥에서 나온 왕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바벨론의 몰락이 선포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책에 써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게 했습니다(51:63). 52장은 함락의 기록을 다시 자세히 전하며 책을 닫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절이 뜻밖입니다. 포로 된 지 삼십칠 년, 감옥에 있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 죄수의 옷을 벗고 왕의 식탁에 앉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항상 왕의 앞에서 먹었더라"(52:33).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오십이 장 내내 무너짐을 기록한 책이 석방으로 끝납니다.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말해 온 이 책의 주제가 마지막 네 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앞으로 풀려날 모든 포로를 미리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이 여호야긴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 이릅니다(마 1:11-12).

죄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식탁에 앉히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엡 2:6). 오늘 밤 금요기도회, 바룩에게 주신 말씀(렘 45:1-5) 앞에 모입니다. 오래 갇혀 있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 식탁을 베푸시는 그분 앞에 앉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8월 28일 (금) · 감옥에서 나온 왕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8월 29일 (토) | 예레미야애가 1~3장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무 살피기 · 오늘의 본문 이해

무너진 예루살렘 곁에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1:1). 애가의 시들은 각 절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고, 한가운데 3장만 글자마다 세 절씩 삼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3:22-23).

숲 바라보기 · 그리스도 중심 묵상

애가는 슬픔을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노래합니다. 믿음은 눈물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의 책이 한가운데에 가장 깊이 새긴 것은 절망이 아니라 인자였습니다. 진멸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 긍휼이 무궁해서입니다. 징계는 혹독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인자는 아침마다 새로 옵니다.

눈물의 선지자 너머에 눈물의 구주가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분(눅 19:41), 우리가 받을 진멸을 대신 받으신 분. 내일 주일, 바로 이 본문(애 3:19-26) 앞에 섭니다. 소망은 폐허가 끝난 뒤가 아니라 폐허 한가운데서 아침마다 옵니다. 함께 그 인자를 받으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8월 29일 (토) · 아침마다 새로우니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